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웨스트나일열, 여러 국가 West Nile fever in Multi-country

미국, 유럽지역 웨스트나일열 유행 기간 시작, 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발생 수준

- 미국, 유럽지역은 7월부터 9월까지 웨스트나일열 주 발생 기간으로 '25년 현재까지 발생은 전 년 동기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
 - '25년 현재까지 미국은 15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49명 발생(7.15.기준) 보고되었으며, 유럽지역은 이탈리아 10명, 그리스 4명, 루마니아 1명 발생 보고됨
- 이탈리아는 국가 아르보바이러스 예방·감시·대응 계획에 웨스트나일열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웨스트나일열 주의 안내문 발송, 사례 발생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예방·대응 조치 중임
- 국내에선 20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나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

2. 감염성 홍반, 일본 Erythema infectiosum in Japan

'25년 일본 감염성 홍반 환자 증가 추세('24년의 3배 수준)

- '25년 일본에서 감염성 홍반 발생 지속 증가 보고됨. '24년 가을 이후 관동 지역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전국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28주 기준 전국 평균 감시기관당 보고 수는 2.06, '25년 감시기관당 누적 보고 수는 33.08로 '24년 보고 수(10.28)를 3배 이상 초과함
 - 일본 후생노동성과 지역 보건당국은 감염 예방 안내 및 대응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감시기관당 보고 수가 경보 기준(2.0)을 초과한 지역(이바라키현, 오사카현, 아이치현 등)에서는 경보를 발령함
 - 국내에서 감염성 홍반은 비법정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며, 중증 사례는 드물지만, 임산부나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임상적 주의가 필요함.⁷⁾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므로, 기침 예절, 손위생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
- ※ 일본은 법정감염병(표본 감시)으로 지정, 이 외 미국, 영국 등은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3. 보툴리눔독소증, 프랑스 Botulism in France

프랑스 서부 쇼레지역에서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6명 발생

- 프랑스 서부 메느에루아르(Maine-et-Loire) 주 쇼레(Cholet)지역에서 보툴리눔독소증으로 6명이 입원한 사례가 보고됨. 환자들은 수제 통조림 당근으로 만든 당근 케이크를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각한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프랑스에서는 보툴리눔독소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3년 보르도 내 레스토랑에서 정어리를 섭취 후 16명(사망 1명 포함) 발생 사례와 '24년 앙드르에루아르 주 내 여러 축제에서 판매된 수제 마늘 페스토를 섭취 후 환자 5명 발생 사례가 보고됨
- 국내에서는 '03년부터 '22년까지 산발적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방을 위해 ▲보관식품을 피하고 냉장보관하며, ▲저장 식품은 10분 이상 끓이고, ▲캔의 경우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폐기하고,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 시행을 권고

4. 콜레라, 폴란드 Cholera in Poland

폴란드에서 6년 만에 콜레라 자국 내 감염 발생

- '25년 폴란드 북서부 스타가르드 지역에서 6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환자와 가족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환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중증 설사, 탈수, 신부전 등으로 지역병원에 입원하여 콜레라 진단 받은 이후 주립 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치료 중이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됨
 - 접촉자 총 85명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밀접 접촉자 26명은 자가격리 중임. 폴란드 보건당국은 감염원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 전파 위험은 낮다고 평가함
- 국내에서는 '20년 이후 콜레라 환자 해외유입 및 발생 보고 없으며, 해외여행 시 올바른 손 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함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하기 등

1. 웨스트나일열, 여러 국가 West Nile fever in Multi-country

발생 상황

- 미국, 유럽지역은 7월부터 9월까지 웨스트나일열 주 발생 기간으로 현재까지 '25년 발생은 전 년 동기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
- '25년 현재까지 미국은 15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49명 발생(7.15.기준) 보고되었으며, 유럽지역은 이탈리아 10명, 그리스 4명, 루마니아 1명 발생 보고됨

■ 미국

- 미국은 7월부터 9월까지 웨스트나일열 주 발생 기간으로 '25년 현재까지(7.15.) 15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49명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는 24명(49.0%)임, 주요 발생지역은 애리조나 주(15명), 루이지애나 주(7명), 오클라호마 주(5명), 텍사스 주(5명)임¹⁾
 - * 애리조나 주(15명), 루이지애나 주(7명), 오클라호마 주(5명), 텍사스 주(5명), 미시시피 주(3명), 테네시 주(3명), 버지니아 주(2명), 캘리포니아 주(2명), 앨라배마 주 조지아 주 캔사스 주 네브라스카 주 노스다코타 주 오하이오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각 1명)
 - ** 임상증상으로 신경계 침습 질환과 신경계 비침습 질환으로 구분되며, 신경계 침습 질환 증상은 경수막염, 뇌염, 급성 이완마비 또는 급성 중추 혹은 말초 신경계 이상
- 미국에서 '24년 웨스트나일열 발생은 49개 주에서 총 1,791명(사망 164명) 보고되었고 1~5월 8명, 6월 10명, 7월 55명으로 '25년 발생은 전년 동 기간과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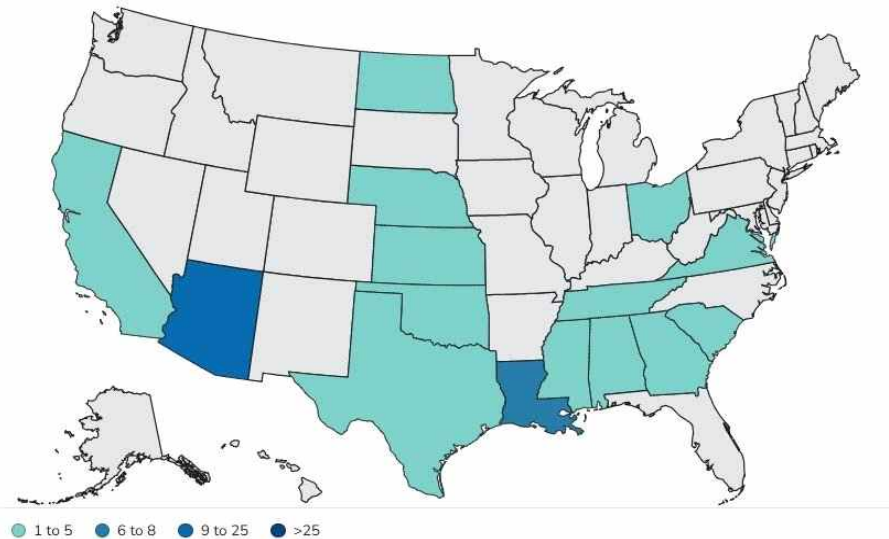


그림 1-1. '25년 미국 웨스트나일열 발생 지역 (美CDC, 7.15. 기준)

■ 유럽

- 유럽지역은 7월부터 9월까지 웨스트나일열 주 발생 기간으로 '25년 현재까지 3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이탈리아 10명(~7.21.), 그리스 4명(~7.16.), 루마니아 1명(~7.16.)으로 각 국가 발생은 전년 동기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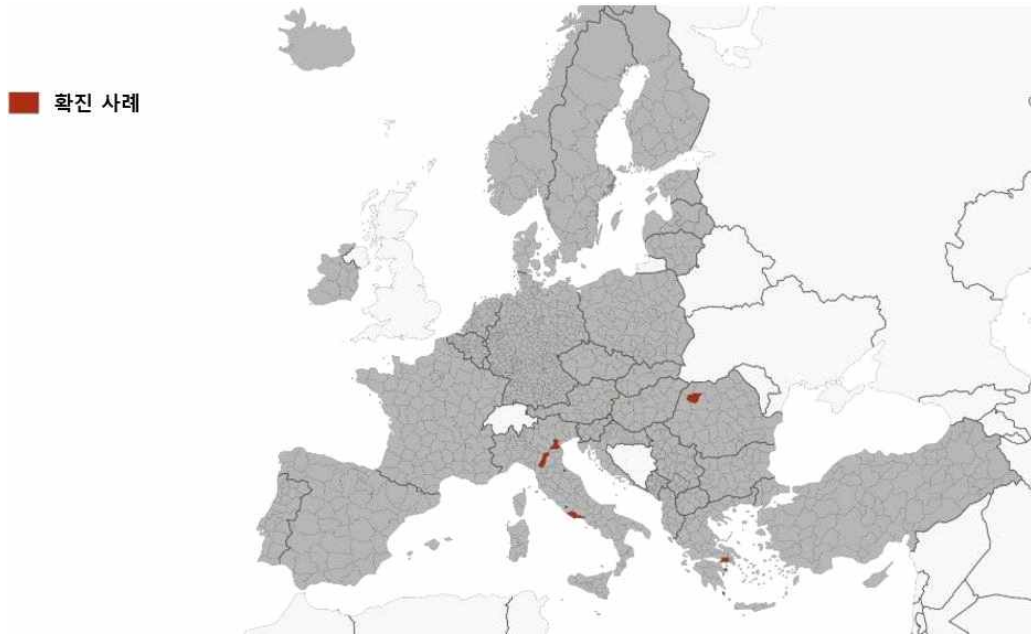


그림 1-2. '25년(~7.16.) 유럽 웨스트나일열 발생 지역 (ECDC, 7.16. 기준)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25년(~7.20.) 웨스트나일열 10명 발생 보고됨. 이 중 7명*이 라치오 주 라티나 지역에서 발생(사망 1명)하였고, 6명이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임. 같은 지역이지만 사례 간 역학적 연관성은 없었으며, 사망자는 82세 여성으로 7월 14일 발열, 혼돈 증상으로 입원한 후 사망함⁴⁾

* (성별) 남성 4명, 여성 3명 (연령범위) 63~86세(중앙값 72세)

- 이탈리아 보건부는 '25년 웨스트나일열 역학적 추세가 전년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으며, 전년 동기간 ('24.7.24.) 웨스트나일열 확진 사례는 13명(사망 없음)으로 '25년 발생은 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임

* '24년 이탈리아 웨스트나일열 총 460명 발생하여 , 이 중 신경계 침습 질환은 272명으로 20명이 사망함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25년(~7.16.) 살라지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1명 발생 보고됨. '24년 발생은 99명임 ('24.12.4.기준)

그리스

- 그리스는 '25년(~7.16.) 웨스트나일열 4명 발생 보고됨. 모두 아티카 주*에서 발생하였고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로 사망자는 없음. 연령 범위는 68~73세(중앙값 71세)이며 첫 사례의 증상발생일은 6월 22일임. '25년 발생은 전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며 '24년 발생은 220명임⁵⁾

* 서 아티카(2명), 피레우스 (1명), 아티카 제도(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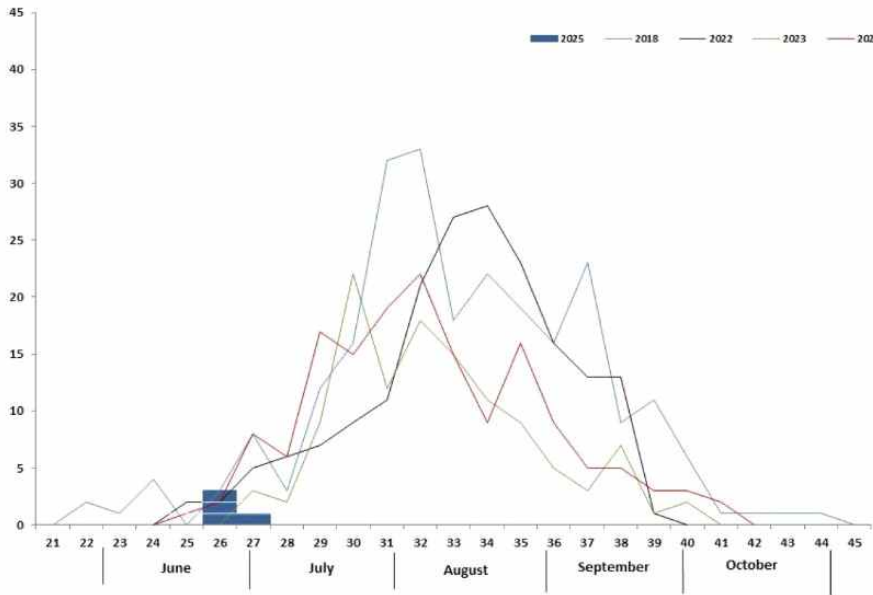


그림 1-3. '18년, '22~'25년(~7.16.) 그리스 웨스트나일열 증상발생일 기준 발생 현황 (NPHO, 7.16. 기준)

상황 평가

- '25년 유럽지역 웨스트나일열 사례 첫 증상발생일이 6월로 최근 5년 첫 발생 시기와 동일
- 이탈리아는 국가 아르보바이러스 예방·감사·대응 계획에 웨스트나일열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웨스트나일열 주의 안내문 발송, 사례 발생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예방·대응 조치 중임
- 국내에선 20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나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

- 유럽에서 웨스트나일열은 유럽 온대지역의 모기 활동이 활발한 6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며, 최근 5년간 첫 사례 증상발생일이 6월로 '25년에도 동일한 시기에 발생함. '24년 유럽에서 발생은 최근 10년 월평균보다 높았으나, '25년 발생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임
- 이탈리아는 '20년부터 웨스트나일열을 국가 아르보바이러스 예방·감사·대응 계획(2020-2025)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보건소·의료협회에 웨스트나일열 주의 안내문 발송(5월), 웨스트나일열 예방 안내 및 '25년 웨스트나일열 첫 발생 시 보도자료 배포(7월) 등 대응 조치 중임
- 국내에선 20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

1) 美CDC West Nile virus Current Year data (2025) (美CDC, '25.7.15.)

2) ECDC Weekly Updates, 2025 West Nile virus transmission season (ECDC, '25.7.17.)

3) 보도자료 | West Nile in Italia: aggiornamento sui casi del Lazio (이탈리아 국립보건원, '25.7.21.)

4) 이탈리아 언론보도 | Virus West Nile, 10 casi nel 2025 in Italia.I sintomi e come si cura (IA Repubblica, '25.7.21.)

5) Weekly Epidemiological Report for West Nile Virus infection, Greece, 2025 (NPHO(그리스 국립공중보건원), '25.7.16.)

2. 감염성 홍반, 일본 Erythema infectiosum in Japan

발생 상황

일본의 '25년 28주 기준 감염성 홍반 환자가 지속 발생 보고 중임. '25년 감시기관당 누적 보고 수는 33.08(89,957명)로 '24년 연간 수치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 '25년 28주 일본의 감염성 홍반 환자가 지속 발생 보고 중임. 전국 평균 감시기관당 보고 수 2.06, '25년 감시기관당 누적 보고 수는 33.08(89,957명)로 '24년 연간 수치(10.28, 32,188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음¹⁾²⁾
- 지역별로는 야마가타현(87.92), 도치기현(85.33), 후쿠시마현(70.95), 도야마현(63.79), 홋카이도(62.44) 등 관동 지방에서 발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감시기관당 보고 수는 야마가타현(5.76), 시마네현(4.64), 도치기현(4.41), 도야마현(4.00), 군마현(3.92)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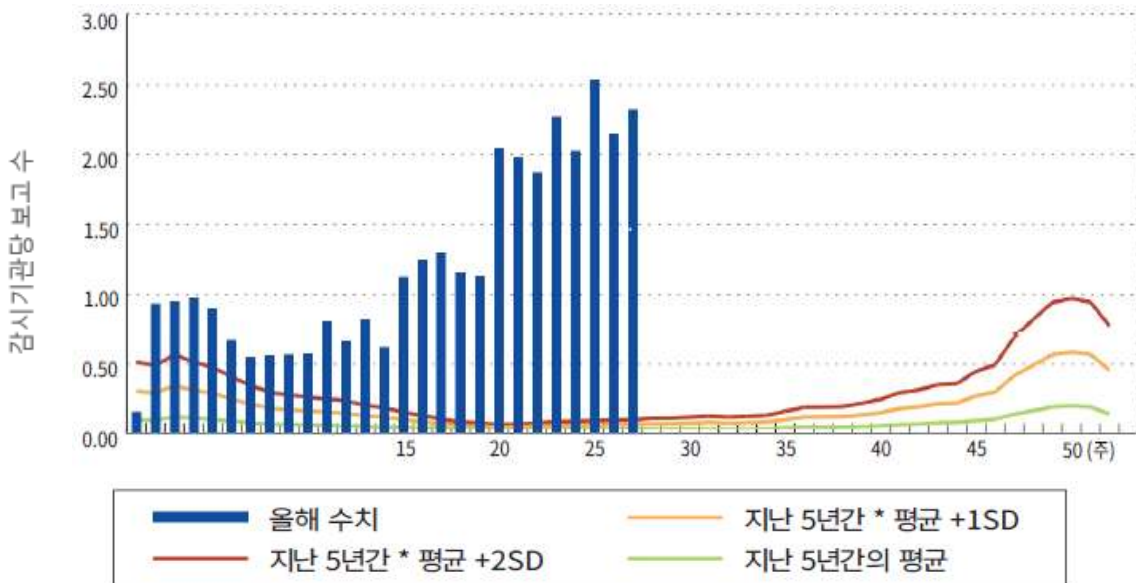


그림 2-1. 지난 5년간 및 '25년 일본 주차별 감염성 홍반 감시기관당 보고 수(JIHS, '25.7.18. 기준)

※ '25년 15주 기준, 약 3,000개에서 2,000개로 감시기관 축소에 따라 비교 시 주의가 필요

- '25년 감염성 홍반의 감시기관당 보고 수는 지난 5년간의 동기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남. 일본에서는 거의 4~6년 주기로 '01, '07, '11, '15년에 감염성 홍반이 크게 유행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2년)을 포함 뚜렷한 계절성이 보이지 않았음. '23년까지 대규모 유행 없이 감시기관당 보고 수가 0.02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

상황 평가

- '25년 일본에서 감염성 홍반의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후생노동성과 지역 보건당국은 감염 예방 안내 및 대응 조치를 발표함³⁾(4.30)
- 감시기관당 보고 수가 경보 기준(2.0)을 초과한 지역(아바라키현, 오사카현, 아이치현 등)에서는 경보를 발령함⁴⁾⁵⁾⁶⁾

- 일본 후생노동성과 지역 보건당국은 감염성 홍반 발생 증가에 대해 감시기관에 주의를 요청하는 감염 예방 안내 및 대응 조치를 발표함(4.30.) 감시기관당 보고 수가 경보 기준(2.0)을 초과한 지역(이바라키현, 오사카현, 아이치현 등)에서는 경보를 발령함
 -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서의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 준수(손씻기, 기침예절 등)를 권고함. 또한, 각 지역별 주민 대상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의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함
- 국내에서 감염성 홍반은 비법정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며, 중증 사례는 드물지만, 임신부나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임상적 주의가 필요함.⁷⁾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므로, 기침 예절, 손위생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
 - ※ 일본은 법정감염병(표본 감시)으로 지정, 이 외 미국, 영국 등은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그림 2-2. 양측 뺨 감염성 홍반으로 인한 나비 날개 모양의 발진(美CDC, '24.11.26. 기준)

질병개요	감염성 홍반	〈Erythema infectiosum〉 ⁸⁾⁹⁾
정의	· 파보바이러스 B19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발진 질환, 주로 소아에서 볼 수 있으며, “제5병(Fifth Disease)”으로도 불림. 뺨이 붉게 달아오르는 특징적인 발진 때문에 흔히 “뺨 홍반 증후군(slap cheek syndrome)”이라고도 불림	
병원체	· 인간 파보바이러스 B19(Human parvovirus B19)	
잠복기	· 4~14일(최대 21일)	
감염경로	·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 가능, 파보바이러스 B19에 걸린 사람의 침이나 콧물을 만진 손으로 본인의 눈이나 입을 만져서 전염될 수 있음 - 임신부가 걸리면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고, 혈액 또는 혈액 제제를 통해서도 전염 가능	
임상증상 및 경과	· (소아) 발열 후 양쪽 뺨에 뚜렷한 홍반성 발진, 이후 팔·다리·몸통으로 망사 모양 또는 레이스 모양의 발진 확산, 발진은 약 1주일 정도 후에 사라짐 · (성인) 관절통, 관절염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임산부) 감염 시 태아 빈혈, 유산, 사산, 태아수종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진단	· 특징적인 발진 및 임상 소견을 기반으로 하며, 필요 시 혈액검사(IgM assay, Dot blot hybridization, PCR 등으로 PV-B19)로 확진	
치료	· 특별한 치료법이 없음, 증상에 따라 치료 - 가려움이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목욕 치료법을 시행, 관절통과 미열은 해열진통제를 처방하여 치료	
예방	· 일반적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준수 권고	

1) IDWR 속보 데이터 2025년 제28주 감염성 홍반 발생 데이터 (Japan Institute for Health Security(JIHS), '25.7.22.)
 2) IDWR 2025년 제26호 <주목해야 할 감염증> 감염성 홍반 (Japan Institute for Health Security(JIHS), '25.7.11.)
 3) 감염성 홍반 증가에 따른 주의 촉구 (일본 후생노동성, '25.4.30.)
 4) 이바라키현 내 전역 감염성 홍반의 유행 경보 발령 (이바라키현 보건부, '25.5.7.)
 5) 오사카시 감염성 홍반 경보 발령 보도자료 (오사카시 보건부, '25.6.19.)
 6) 아이치현 감염성 홍반 경보 발령 (아이치현 보건부, '25.7.10.)
 7)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parvovirus B19 infection in children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August 2020, Vol. 27, No. 2)
 8) About Parvovirus B19 (美CDC, '24.11.26.)
 9) Notes from the Field: Parvovirus B19 Activity— United States, January 2024–May 2025 (미CDC MMWR, '25.6.26.)

3. 보툴리눔독소증, 프랑스 Botulism in France

발생 상황

'25년 7월 프랑스 쇼레지역에서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6명이 발생함. 환자들은 수제 당근 통조림으로 만든 케익을 섭취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모두 입원 치료 중으로 확인됨

- 페이 드 라 루아르 지역 보건청에 따르면, 프랑스 메느에루아르(Maine-et-Loire) 주 쇼레(Cholet) 지역에서 보툴리눔독소증으로 6명이 입원한 사례가 보고됨¹⁾²⁾³⁾. 환자들은 은퇴한 부부들로 한 부부가 만든 수제 통조림 당근으로 만든 당근 케이크를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월 7일과 7월 14일 사이에 심각한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현재 건강 상태가 알려진 바는 없으며, 수제 통조림 당근이 상업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으나 환자들 외 추가로 섭취한 가족 구성원 등이 있는지 노출 범위와 잠재적인 노출 대상자를 조사 중임
- 한편, 프랑스에서는 보툴리눔독소증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함
 - 가장 최근 발생한 사례로는 '24년 앙드르에루아르 주에서 수제 마늘 페스토를 섭취 후 5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발생함. 제품은 오 브띠 오농(O ptits oignons) 브랜드에서 나온 것으로, '24년 3월 30일~4월 1일 부르데지에르 성에서 열린 식물과 봄 축제, 4월 13일~14일 생타메르탱에서 열린 축제, 7월 26일 열린 마늘과 바질 박람회, 9월 7일~8일 몽루이쉬르루아르 지역 토마토, 향신료 축제에서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보건 당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함¹⁾⁴⁾⁵⁾
 - 또한 '23년에도 보르도에서 16명의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함. 사망자를 포함한 환자들은 모두 보르도 시내 있는 와인바(Tchin Tchin Wine) 겸 레스토랑에서 '24년 9월 4일~10일 사이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시 레스토랑 주인이 직접 통조림으로 만든 정어리를 섭취함. 환자 중 7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이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함. 또한 독일, 스페인에서도 연관된 사례가 확인됨

상황 평가

-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독소에 의해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발병 시 위장계 문제부터 마비, 호흡 부전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이는 종종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통조림 식품에서 발생함
- 국내에서는 산발적 발생이 있었으며, 예방을 위해 ▲보관식품을 피하고 냉장보관하며, ▲저장 식품은 10분 이상 끓이고, ▲캔의 경우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폐기하고,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 시행을 권고

-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발병 시 위장 문제부터 마비, 호흡 부전과 같은 심각한 신경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는 종종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통조림 식품에서 발생함
- 국내에서는 '03년 3건, '04년 4건, '14년 1건, '19년 1건, '20년 1건(실험실 노출), '23년 1건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을 위해 ▲보관식품을 피하고 냉장보관하며, ▲저장 식품은 10분 이상 끓이고, ▲캔의 경우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폐기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 시행을 권고함⁸⁾

질병개요	보툴리눔독소증	<Botulism> ⁸⁾
정의	· 클로스트리디움속 균(<i>Clostridium botulinum</i> , <i>C. butyricum</i> , <i>C. baratii</i> 등)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제1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lostridiaceae</i>과 절대혐기성의 아포형성 그람양성 간균 · 독소의 혈청형에 따라 7종(A-G)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A,B,E,F형이 사람에게서 보툴리눔 독소증을 일으킴 · 생물위해정보: 고위험병원체, 제2위험군, 생물안전밀폐등급 Biosafety level 2(BL2) · 감염력: A형 보툴리눔 독소는 70kg의 사람에게 주입시 0.15μg로도 치명적이며, 흡입의 경우 0.07μg, 섭취의 경우 70μg 정도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함 	
병원소	· 사람, 어류를 포함한 동물(가금류, 어류, 소, 개, 멍크 등)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매개형) 6시간~8일(일반적으로 12~36시간, 드물게는 6시간 후 또는 10일 후에 발현) · (영아형) 3~30일 · (상처형) 4~14일(평균 7일)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매개형) 보툴리눔 독소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발생 · (영아형) 균의 아포에 오염된 음식 섭취 후 아포가 장내에서 발아, 정착하여 독소를 생산하면서 발생 · (상처형) 보툴리누스균의 아포가 상처로 들어간 독소를 생성하면서 발생 · (기타형) 미용(주름 제거) 또는 치료(땀두통 등) 목적으로 많은 양의 독소의 주입되거나 가공·살포된 생물학제제를 흡입하여 발생 	
임상증상 및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3S(seeing, speaking, swallowing) 기능저하를 시작으로 관련 증상 발현 · 급성, 비 발열성, 대칭성, 하행성 이완 마비가 특징임 · (뇌신경 마비 증상) 복시, 안검하수, 안면근육 근력 저하, 연하곤란 및 발음 곤란 등 · (자율신경계 증상) 구갈, 동공 고정이나 산대, 변비 외에 심혈관계아 위장관계, 비노기계에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 (호흡근 마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만약 증상발현이 매우 빠른 경우 갑작스런 호흡근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발열은 없고, 감각이나 지남력은 일반적으로 소실되지 않음 	
치명률	· 약 5% 정도이며, <i>C.botulinum</i> 독소의 치사량은 독소형과 체내 유입 경로에 따라 성인에서 1 μ g 이하일 수 있음. 항독소를 사용하면 치명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음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대변, 구토물, 위흡인물 등)에서 독소 생성 <i>C.botulinum</i> 등 분리 동정 ·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물 등)에서 보툴리눔 독소 검출 	
치료	· 항독소제 투여(국가 비축)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감염예방 수칙 준수, 1세 이하 영유아에게 꿀 섭취 금지 · 보관식품은 햇볕을 피하고 냉장보관, 저장 식품 10분 이상 끓이기 · 캔의 경우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버리기 등 	
국외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국가) 보툴리눔균의 자연계 존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헐적 발생 보고 · (발생동향) 지속적 발생 · (위험지역) 염장이나 건조 생선, 통조림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 빈도 높음 	
국내발생	2003년 3건, 2004년 4건, 2014년 1건, 2019년 1건(영아 보툴리눔독소증), 2020년 1건 발생(실험실 노출), 2023년 1건 발생	

1) Foodborne botulism, France (BEACONBIO, '25.7.17.)
 2) 보도자료 | Cas groupés de botulisme sur le secteur de Cholet (프랑스 지역보건청, '25.7.17.)
 3) Maine-et-Loire : des cas de botulisme révélés à Cholet (현지 언론보도, alouette, '25.7.16.)
 4) Alerte déclenchée après des cas possibles de botulisme liés à des conserves vendues en Indre-et-Loire (현지 언론보도, alouette, '24.9.10.)
 5) Botulisme : cinq personnes en réanimation pour une suspicion de botulisme en Indre-et-Loire, des bocaux de pesto à l'ail des ours mis en cause (현지 언론보도, Le Monde, '24.9.10.)
 6) Épidémie de botulisme à Bordeaux : décès de l'une des personnes contaminées (현지 언론보도, alouette, '23.9.13.)
 7) Botulisme : quatre questions pour comprendre l'affection neurologique ayant touché une douzaine de personnes (현지 언론보도, Le Monde, '23.9.13.)
 8)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5.1월)

4. 콜레라, 폴란드 Cholera in Poland

발생 상황

'25년 폴란드에서 6년 만에 콜레라 환자 발생 보고(7.20.), 환자와 가족은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현재는 격리 치료 중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됨

- '25년(7.20.) 폴란드의 서포메라니아주 스타가르드(Stargardzie) 지역에서 6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환자와 가족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¹⁾²⁾³⁾
 - ※ '19년 폴란드에서 마지막 콜레라 사례(크루즈 선원) 보고
 - 환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중증 설사, 탈수, 신부전 등으로 지역병원에 입원하여 콜레라 진단을 받은 이후 주립 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치료 중이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됨
 - 두 차례의 검사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었고, 해당 균이 독소를 발현하는 균주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임
- 접촉자 총 85명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밀접 접촉자 26명(의료진 포함)은 자가격리 중임²⁾
 - 조사팀은 환자의 거주 환경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접촉자 및 감염원에 대해 조사 중임
 - 한편, 환자가 처음 입원했던 지역병원에 병동 소독이 권고되었으며, 신규 환자 입원 및 환자 면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

상황 평가

- 폴란드 보건당국은 감염원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 전파 위험은 낮다고 평가함
- 국내에서는 '20년 이후 콜레라 국내 환자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해외여행 시 올바른 손 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함
- 폴란드 보건당국은 콜레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환자를 격리하였고, 감염원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 전파위험은 낮다고 평가함
- 국내에서는 '20년 이후 콜레라 국내 환자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 * ('01년) 경상도를 중심 전국적인 콜레라 유행으로 환자 162명(확진 142명) 발생, ('16년) 경상남도 환자 3명 발생
 - ** ('19년) 인도 1명, ('18년) 인도 2명, ('17년) 필리핀 4명, 인도 1명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외여행 시 올바른 손 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권고함
 - * '25년 3분기 콜레라 검역관리지역은 30개 국가를 오염지역으로 지정('25.7.1.)하였으며,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http://qcode.kdca.go.kr>)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하기 등

1) Wspólny komunikat nr 1 Głównego Inspektora Sanitarnego i Konsultanta Krajowego w dziedzinie chorób zakaźnych w sprawie przypadku podejrzenia cholery (폴란드 보건부, '25.7.20.)

2) Przypadek cholery u seniorki w Stargardzie potwierdzony przez dwa niezależne laboratoria (언론보도 PAP, '25.7.20.)

3) First cholera case in Poland in 6 years - Chief Sanitary Inspector confirms (언론보도 Polskie Radio, '25.7.20.)

4) 보도참고자료 |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 '19.11.1)

참고사항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7.23.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7.17.~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1명 발생(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봉 크뭉(Tbong Khmum) 주 거주 6세 남아, 폐사한 가금류 요리를 섭취함으로써 인한 감염 추정,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동반) ※ 캄보디아 '25년 12명 발생(사망 6명) 및 '03년부터 누적 84명 발생(사망 49명, CFR 58%)
'25년 발생 (7.23.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에서 25명 발생(사망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13명, 사망 6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3명),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인도(1명, 사망), 멕시코(1명, 사망)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국에서 987명 발생(사망 473명, CFR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85명, 사망 49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1명, 사망 1명) 등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7.5.)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대륙별 감염병 등 건강정보 소책자)

1. 내용 및 구성

- ① 대륙별 필수·권장 예방접종 정보, ② 주의 감염병별 원인·증상과 예방법, ③ 현지 주의사항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④ 현지 대사관 연락처 등 **여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유의 사항**
- 총 5종(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2.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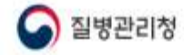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혹은 QR코드 활용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아프리카/중남미 2종에 한함)
-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누리집(nqs.kdca.go.kr)에서 기관 목록 확인

《해외여행객 대상 대륙별 건강정보 소책자 목록》

<p>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중남미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p>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동남아시아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남아시아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소책자 pdf자료 내려받기〉 검색창에 '건강정보 소책자' 검색</p> <p>〈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목록〉</p>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홍역 예방수칙, 미리 챙기는 센스!

2024.12.5.



홍역 예방수칙, 미리 챙기는 센스!

⚠️ 해외여행 및 교류 증가로 국내에 유입되어 산발적 발생이 가능한 홍역,
국내 홍역 환자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통해 감염되거나 홍역 예방접종(MMR) 2회 미접종!

홍역이란?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 발생 후 홍반성 발진 발생

여행 중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력 확인하기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여행 후

의심증상(발열, 발진 등)이 생기면



입국 시에 **검역관에게 알리기**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 연락 후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더 자세한 정보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6대 예방수칙!

2024.2.2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

주요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